

불교의 역사적 이해①

'역사와 '신화'가 혼재된 다양한 붓다의 모습을 해체한다. 불교로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고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택(고려대) 교수의 인문강좌 주제 '불교의 역사적 이해(A Buddha or Many Buddhas?)'는 불교를 역사적 전개를 따라 고찰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불교 내에서 다양하게 거론되는 진리를 인문학 바깥 분야와 소통하는 인문교양 측면의 불교로 주제를 삼는다. 이번 강의는 총 4회에 걸쳐 전개되는 강의의 도입부다.



강사 : 조성택 (고려대학교 철학과·불교철학)
주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일시 : 2008년 7월 26일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붓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



우리는 현재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유형별로 나누자면 신비적 관점과 이성적 측면의 두 사이를 경계 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신비적 이해란 붓다를 신과 같이 숭배하는 것으로 기복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행생 입시기도가 있습니다. 불행이 닥치지 않기 위해 혹은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한 정된 인원만 합격하고 누군가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행생 입시기도는 종교인이 모여서 무의미한 경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발원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신비적인 불교 이해는 기복적이고 무속적이며 출가자의 오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듯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불교의 강점입니다. 수행의 결여로 인해 범부우치(凡夫愚癡)를 대량생산하면서 종교는 현재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종교 혹은 사회의 다른 부분과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불교를 해석하는 합리적 이해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이성적 이해가 지닌 문제점입니다. 붓다를 철학자 혹은 사상가로 이해하는 합리적 사유방식이 있습니다. 신화적 요소를 배제한 합리성이 이성의 지나친 강조로 불교의 본질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철학으로 이해한 불교는 종교의 초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성적 불교의 폐해가 신비적 불교에 비해 적더라도 말입니다. 불교를 이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발원지는 근대 유럽입니다. 중세 권위적 종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성과 지적 활동을 펼친 때문입니다. 사회·인간·우주에 대한 이성적 사유가 힘으로 통했죠. 당시 서구의 갈등은 기독교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불교를 발견하면서 근대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이 시도됐습니다.

현대는 수행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재가 지식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교 권위자가 지닌 지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사회인들이 전문 지식인으로 등장하면서 스스로 경전을 읽고 자가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성적 불교의 이해를 위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상으로서 불교의 특징 근대들이 문제된 것은 철학인가, 종교인가입니다. 둘 다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서양에서는 철학과 신학이 나뉘었고 철학과 종교가 구분됩니다. 그 기준은 이성적 사유입니다. 불교도 역시 철학인가 종교인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한 기준이었고 유일신이 있고 없다는 관점으로 불교를 바라보다보니 종교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절대자에 의한 믿을 구원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닌 철학입니다. 철학은 신학과 구분되면서 이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의는 1920~1930년대 일본 통치하에 한국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기독교와 불교가 충돌했던 실재상황입니다. 불교는 왜 서양 철학 입장에서 소통이 어려울까. 불교는 일상적 견해라든지 이성적 사고에 있어 명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회 활동에서 불교는 삼매 체험에 기반을 둔 사상적 측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체험이 일상의 경험보다 인식론적으로 더 타당하고 유용하다는 결론입니다. 인식의 순간에 오늘 내가 생각한 진리는 내일의 수행에 의해 오늘 내가 부정당하는 실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나의 진리가 나보다 경지 높은 이에 의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불교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붓다의 입장에서 본 승의제(勝義諦)인 궁극의 진리가 있고 일상의 속제(俗諦)라는 두 가지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궁극의 진리와 일상의 진리 사이에는 나의 수행정도와 경지에 의한 무한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붓다는 누구인가? 현대 불교학의 입장에서 초기 붓다는 인간 혹은 승승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 들어 신으로 다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붓다는 관심의 인물로 등장했죠. 붓다는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Martin Luthen)'에 견주어졌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이후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 1818~1883)주의 운동이 벌어졌는데 붓다의 삶이 인류 최초의 마르크스로 비춰졌습니다. 차가운 가슴을 지닌 냉철한 지성인 즉 번뇌의 정열을 식힌 붓다야말로 완벽한 빅토리아 시대 신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붓다의 재구성이죠. 붓다는 인간·사상·철학가로 영국에 의해 탄생했고 20세기 초에 일본이 영국에서 해석된 붓다를 재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붓다는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을 극복한 뒤에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뭐냐? 결국은 깨달음의 경험에 의해 의식이 변화한 존재입니다. 신과 인간의 대립적인 존재 구조가 아닙니다. 불교의 역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상적 경험이 아닌 선정 경험의 체험이 불교이듯 의식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붓다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불교 경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전은 깨달음을 언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적 언어와의 긴장관계를 지닙니다. 표현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체험이 지닌 속성을 글로 옮겼을 때 그 방식은 묘사와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극화되면 이론이 되죠. 경전은 묘사와 이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꽃비가 내리다가 무상과 고(苦)의 교리를 서술합니다. 불교 경전은 해석하는데 4가지 의의치가 있습니다. '법이 의지처지 사람은 의지처가 아니다.' 여기서 법은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옆구리에서 탄

생했는가. 사실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닌 '환기식 독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안의 메시지와 의미를 이해하며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정신과 의미가 의지처지 문자는 의지처가 아니다.' 2500년 전 철기문화 시기에 인도인의 바탕인 바라문의 길종화복은 하늘에 달려있었습니다. 붓다의 '천상천하유아독존'은 이른바 '인간중심주의 선언'입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선언입니다. '완전한 의미를 담은 경전은 의지처다. 임시적인 의미를 담은 경전은 의지처가 아니다.'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규칙입니다. '직접적인 지식(현량)이 의지처지 사변적인 의식 활동은 의지처가 아니다.' 앞의 세 가지 규칙을 요약하는 해석으로 직접적인 지식이란 직접 체험입니다. 이것이 경전을 해석하는 틀이지 사변적인 이성적 해석 활동은 바른 해석학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고통'일까요? 불교 경전의 핵심인 사성제중 고성제는 붓다 당시의 사회와 종교적인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오음(五陰)은 인간 존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찰라 생멸하는 존재를 연속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고통입니다. 이 언어는 이성적인 사유가 아닌 명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회고적 진리'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전 삶을 되돌아 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는 고성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있어 이성적 사유로 판단해야 할 논리적 명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불교경전은 '방법론적 불가지론'의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불교경전들의 역사적 기록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교리를 통해 초기 불교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기를 내가 지닌 이성과 관련 맺을 때 우리는 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연속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 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실행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문의 및 안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좌선실수·묵언·지관검수·생활선·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음향연구사 김문화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차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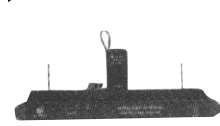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알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